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상)

김성식 (대전시 중구 부사동)

속리산 법주사 미륵 부처님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관공객이 뻥뻥이 들어 왔는데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다. 하염없이 절을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서글픔이 뭉클 듯이 몰려왔다. 육신의 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듯 하여 배를 움켜잡고 눈물을 펄펄 쏟았다.

울 때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기력이 다 떨어져 기다시피 법주사 일주문을 나서서 택시를 탔다. 간신히 택시 문을 열면서도 속으로 '지금 내가 무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무리 강한 의지와 끈질긴 집념을 불태우며 살았다 해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괴로움과 맞서야 하는 용기와 힘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할지 그것부터 막막했다. 이해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맞부딪친 느낌이었다. 누구라도 좌절감과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가득 차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충고와 권유대로 열심히 따랐지만 상황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때의 심정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인간의 무보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는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택시비를 준비해 대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다. 병명도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다가 큰 사찰을 찾아가는 병든 아들을 도울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쫘고이고 안타까웠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컸다. 언제나 제일 뒷자리를 배정 받았고, 나를 힘으로 대적할 친구는 없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나는 꿈을 무관한 육군 장교로 정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지도 않은 목표를 세워놓고 보니 스스로가 너무도 대견했다.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장교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말을 할 때는 누구도 나의 이들을 따라 올 자가 없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헬스클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며 체력관리에 힘썼다. 학업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부모님은 공부보다 체육관에 열심인 나에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때때로 공부에 대해 방향제시를 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인정하고 밀어주셨다.

고등학교에 가서야 겨우, 장교가 되려면 체력도 중요하지만 공부 또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부모님을 좀라 과외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고3이 되어 해군 사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영어점수가 턱없이 낮아 보기 좋게 떨어졌다. 이때부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그림 · 문병성

장교가 되겠다는 당찬 꿈을 키우던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으나 병명조차 몰라...

않는다는 좌절감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려하니 죽을 맛이였다. 나는 대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육군 헬기 조종사 시험에서도 낙방하고 나서야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후 성적에 맞는 대학에 입학했다. 진학한 후 학군사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 신청했다.

학업성적, 체력검사, 신원조사를 마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보고 헌없이 기뻐했다. 더구나 장교로서 장래가 보장되고 4년 동안 군(軍)장학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받는 장학금은 졸업 후 군복무를 하면 급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나는 일찍부터 자력으로 대학을 다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에게 크게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적으로 내 친구들은 은연중 군 입대

를 꺼려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어서 빨리 세월이 흘러 빛나는 장교복을 입고 싶었다. 장교가 된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도취되곤 했다.

친구들은 내 생각과 달랐지만 그렇다고 정면으로 나의 의견을 반박하지 못했다. 당시 내게는 그들이 꿈도 없고, 희망과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더위 먹은 것 같이 몸이 나른하며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A형 간염이라며 10여 일간의 입원을 권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자부해 왔던 내가 쓰러지다니... 지켜보던 부모님 앞에서 황당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곤하여 약국 문을 자주 드나들며 한 학기를 마쳤다.

이듬해 봄, 집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 옆에서 후배들과 자취를 하려고 했다.

첫날, 후배들과 자취방에서 보내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려 견딜 수 없었다.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다. 후배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서 응급실에 도착하여 입원을 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께 연락하면 크게 놀랄 것 같아 그냥 참고 낯이 밝아서 연락을 했다.

응급실에 실려 오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내가 끼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뚜렷한 이유 없이 어정쩡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가스를 폭발시켜 화상을 입은 사람, 부모님 싸움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지막하게 내뿜는 소리는 모두 공통되게 '살려 주세요!'였다. 의식적으로 죽으려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 살려달라는 허약함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튿날 어머니께서 한 걸음에 달려 오셨다.

그 후 지속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웃으며 장난도 쳤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날부터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식물만 먹으면 토했다. 입맛도 없어졌다. 보름 만에 몸무게가 15kg이 빠져 헬스했다. 낯길 수 있는 것은 물과 밀가루 죽뿐이었다. 어서 이 병을 떨치고 일어나 학교도 가야하고, 체력도 길러 군장교도 되어야 하는데, 나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겨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로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중구 경희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문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망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초능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지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식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यो  
 지금이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